

종교·복지

단신

광주 장애인교육권 연대 시교육청과 22개항 합의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상임대표 심재의)는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 22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교육 예산이 3% 이상 확보되고, 최대 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유·초·중·고등 특수학급에 치료교사와 특수교사 각 1명씩을 배치하게 되며 특수학급이 2개 이상인 학교에는 직업교사를 배치한다. 유급 특수교육보조원도 30명 확대·배치되고, 공익근무 보조원도 60명 증원된다. 이들의 직무 연수에 대한 경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교육청 내 특수교육 발전위원회 구성 ▲특수학급에 전공자 배치 등도 포함됐다.

고속도로 동전모으기운동 1억4천만여원 성금 모아

“100원 짜리 동전으로 1억 넘게 모았어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홍석)는 ‘희망2007 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한 ‘동전하나 사랑 더하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 활동을 마무리한 결과 1억4천619만5천300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전 모으기 운동은 전남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지난해 12월 1~31일까지 한달 동안 이뤄졌다. 모금액은 지난해 9천83만1천320원보다 5천536만3천980원이 늘어난 것으로 60.9%의 신장율을 기록했다. 전남모금회는 성금을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장비 구입, 시설 보강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내방동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의 외국인 수녀들

지구의 절반 돌아 가난한 자 찾아온 천사들

광주시 서구 내방동 주택가. 광범하게 보이는 한 이층집 때문에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집 주인은 외국인 수녀 3명. 이들은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광주에 머무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글로리아(50·도미니카공화국) 수녀와 에밀리아(42·앙골라) 수녀는 광주시 북구 임동 천주의 성모한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마르시아(40·브라질) 수녀는 같은 재단의 광주공영 노인복지관에서 재가 독거노인들을 돕는다.

이들의 일과는 단순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에 마련된 기도실에서 한 시간 가량 기도한다. 오전 7시경 각자의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한 후 오후 5시까지 봉사활동을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밀린 집안 일을 하거나 미사를 위해 인근 염주동 또는 쌍촌동 성당에 간다. 에밀리아 수녀는 “이 곳에 살면서 친해진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며 “서양과 너무나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버겁긴 해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전 도미니카·앙골라·브라질서 파견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만들고 싶어

이들이 속한 수녀회는 이태리에서 지난 1878년에 창립돼 현재 1천100여명의 소속 수녀들이 전 세계 17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녀회의 모토는 ‘해방, 가난과 질병, 슬픔, 무지 등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뜻이다. 수녀회 측은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정하고, 지난 2001년 초 이들을 서울로 파견했다. 이들은 서강대학교 어학원에서 2년여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한 뒤 광주에 동지를 불었다. 오는 18일은 이들이 한국에 온 지 만 6년 되는 날이다. “천주의 성모한 수녀회”에서 저지들을 초청해 광주로 오게 됐어요. 약 3년동안 생활해보니 정이 느껴져 서울 등 다른 도시들 보다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아요.”(글로리아 수녀)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은 역시 언어 문제다. 한국말을 곧잘 해도 노인 환자들의 사투리를 들을 때면 이해할 수 없어 난감해진다. 마르시아 수녀는 “기도를 할 때 포르투갈어로 생각한 뒤 한국말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배로 든다”며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가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앙골라에서 온 에밀리아 수녀에게는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가 가장 힘들다. 눈이라도 오는 날엔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 생면부지의 동양 땅으로 파견됐을 때 이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글로리아 수녀는 “수녀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서, 시기는 일을 하며 살리라 다짐을 했기 때문”



지난 3일 저녁, 일과를 마친 마르시아, 글로리아, 에밀리아(왼쪽부터) 수녀가 광주시 서구 내방동 자신들의 집 안에 마련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라며 “오허러 가족들이 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수녀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광주에서 봉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수녀회가 다른 곳으로 보내면 가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람은 있다. 광주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함께 살며 봉사하는 것이다. 마르시아 수녀는 “지금 후원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빚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10년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 칼럼



오덕호

성공은 훈련의 대가

프로권투가 한창 인기를 누릴 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경기는 2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챔피언은 단지 수십 번의 펀치로 승리를 얻은 것이다. 다음날 한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편치 한 번에 1억 원.’ 실제로 챔피언이 수십 번 펀치를 날리고 수백 만 불을 받았으니 편치 한 번에 1억 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표현은 챔피언의 가치와 이념의 경기를 인성적으로 잘 보여 주거나 기사 제목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표현이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받은 경기료는 십여 년 동안 훈련받은 대가이지 이날 몇 번 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선수가 지난 십여 년 동안 남들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못하며 연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오랫동안 남다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공은 우연도 아니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그러면 성공을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다. 첫째, 학문과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둘째, 인품과 삶을 바로 세우야 한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품이 나쁘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학진학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대학생활은 학문과 인품을 연마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활은 인생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게으름을 피우면 오히려 인생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반면에 이변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도 십년, 이십년 꾸준히 학문과 인품을 갈고닦으면 인생에서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다만 사회가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의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또한 각자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며 바른 인품과 삶을 세워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서교교회 목사>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조폭마누라3

엔터시네마

올드스튜디오

컬럼버스시네마

중천

대인동삼일부동산

LCE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믿음공인중개사

금강공인중개사

토우드공인중개사

건물매도

정우부동산

인애공인중개사